

관상동맥수술후 추적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

부천시중병원 흉부외과

나찬영·이영탁·한재진·정운섭·정철현·김웅한
김육성·방정현·이 섭·박영관·홍승록

세종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87년 4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총 403례의 관상동맥수술을 시행하였다. 수술후 추적중 협심증 증상을 보인 25례(남자 14례, 여자 11례)에 대하여 추적 관상동맥조영술을 3개월에서 79개월(평균31개월)에 시행하여 80개의 graft중(내흉동맥 19개, 복재정맥 61개) 내흉동맥은 2개, 복재정맥은 19개가 폐쇄되어 개통율은 73%(내흉동맥 89%, 복재정맥 68%)로 나타났다.

Luminal narrowing of graft

	ITA	SV
<50%	1	7
50~75%		3
75-90%		3
total occlusion	2	19

또한 기존의 관상동맥질환은 15례에서 수술전보다 진행된 양상을 보여주었다.

추적관상동맥조영술 결과에 따른 처치는 다음과 같다.

- 1) PTCA on left main coronary artery (2)
- 2) PTCA on native coronary artery (6)
- 3) PTCA on graft (1)
- 4) Redo-CABG (2)
- 5) Observation or medical follow up (14)

결론적으로 추적관상동맥 조영술상에서 내흉동맥의 개통율이 복재정맥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, 또한 관상동맥수술후 협심증 증상의 재발시에는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적절한 처치를 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.